

제 5 회 일 하 는 어 머 니 큰 잔 치

타아예사화보는 어마 아빠 다걸로 !



일 시 : 1992년 10월 11일 (일) 오전 11시

장 소 : 극 민 대 학 교

주 회 : 지역사회박아소 어머니들

주 관 : 지 역 사 회 탁 아 소 연 합 회 (030-3296)

서울경인지역 탁아소 자원활동가 연대회의, 국민대학교 흥여학생회

아가에게

1

사람 세상 문학반 공동창작

넌 세상 처음을

"으앙"하는 울음으로 시작했지만

엄마는 행복으로

아빠는 기쁨으로

또 우리들 이웃은 축복으로

아가를 맞았지!

용알이는 아가 혼자 시작했을지 몰라도

처음으로 일어나 한발 한발 때 놓을때

엄마가 손을 잡아주었고

엄마결엔 아빠가

그리고 주위엔

참 많은 사람이 있었단다.

따신 엄마품처럼

넓은 아빠품처럼

그 둘을 다 합친 사랑속에서

네 울음처럼 밝게

네눈망울처럼 마알강게

그렇게 커나가도

모자랄 아가!

그렇지만 너는

아빠엄마만의 아가는 아니란다.

넉넉하게 품어주고 차근차근 챙겨주며

함께사는 모두에 아가란다

아가!

칭얼대는 너를

덥석 안아 얼르던

까칠한 할머니도 계셨고

쓰린 생채기를

걱정으로 만져주던

아저씨도 계신것을

잊지말고 살자!

고운 이모손은

네가 좋아하는 인형을

삼촌 땀방울은

재미난 테레비

신나는 자전거는

아줌마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잊지말자 아가야!

이젠 아가!

엄마 아들로

아빠 딸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향이 다른 삼촌, 성이 틀린 이모

우리모두 조카로 자라

내 이웃이 사랑스럽고

우리 공장이 자랑스런

그런 아빠 엄마,

아니!이웃으로 살자

혼자먹고, 따로 놀기보다

같이 함께

싸우고 울기보다

웃으며 사이좋게

내것보다 우리들 것

그걸 먼저 배우자

내가 자라는 것이

혼자 일이 아니듯

아가를 키우는 일이

엄마아빠만 몫이 아니란다

세상을 만드는 건 아빠

세상을 꾸미는 건 엄마

그런 세상에서

아가들은

친구들 속에서

모여 모여 바르게 자라

또 다른 아가들을 위해

좋은 삼촌이 되고

착한 이모가 되자!

안산지역 노동자문화공간인 '사람세상'에서 공동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세상 문학반이 보내주신 시입니다.

차

레

1.제5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참가 가족소개 1

2.개회사 2

3.축사 3

4.준비사 4

5.오늘의 행사 5

6.초청공연단 소개 14

7.지방어머니 큰잔치 행사 15

8.국민대학교 시설 이용도 16

9.기획전시 / 17

함께 키우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10.함께부르는 노래 25

제 5 회 어머니 큰잔치 참가 가족 소개

북부

.어린이 사랑방

.밝은 어린이집

.둥근나라 어린이방

동부

.개나리 동산

.슬기아이방

.오손도손 애기방

중부

.개구장이 어린이방

.해송아기둥지

.또래 놀이방

북천

.꽃동네 놀이방

.봉천동애기방

.씩씩이 놀이방

구로

.꾸러기 동산

.구로놀이방

.새터어린이방

.튼튼이 놀이방

.온누리탁아방

.희망어린이집

.새싹놀이방

.한울 탁아방

.사랑터

안산

.오손도손애기방

.진달래동산

.꿈나무어린이네

성남

.푸른솔애기방

.새날아기마을

.하늘어린이집

.동방어린이집

인천

.골목어린이집

.나눔의집

.민들레의집

.새싹들의방

.햇살어린이집

.우리동네어린이집

.세쌍둥이탁아소

.엄마방 놀이방

.샘터선교원어린이집

안양

.우리아가방

.다람쥐놀이방

.한무리어린이집

부천

.룸비니동산

.새날아기방

.새롬어린이집

.한울놀이방

.튼튼이아가방

수원

.용기종기놀이방

.아이벚놀이방

.꿈동산 어린이집

.햇살아기마을

어깨춤 덩실거리며 서로가 서로의 힘으로 남아야



신청자 (성남지역 공동자모회장)

온통 가을로 가득찬 하늘 밑에, 둥그렇게 모여 앉은 우리는 사는 곳도 처지도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기 모인 사람 말고도 수 많은 일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내 아이만 잘 키워보자고 바둥바둥거렸지만, 지금은 세계의 주인이 노동자이며 역사를 재생산하는 어머니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이 땅의 딸들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편견을 깨부수고 어머니의 일할 권리와 아이의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싸움에 있어 올 해는 어느해 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공무원들 백날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성 무서운 줄 알고 백성의 뜻을 따르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끝으로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올해 어머니 큰 잔치는 예년과는 달리 문화제적이고 가족적인 잔치로써 계획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마구잡이로 들어온 저질문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성을 담아낼 수 있는 노래와 춤으로, 아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어우러진 한 마당은 얼마나 신명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어깨춤을 덩실거리며 서로가 서로의 힘으로 남기를 약속 합시다.

'92 어머니 큰잔치를 축하합니다 !



최현숙(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매년 가을이 되면 찾아오는 큰 손님, '92년도 어머니 큰잔치'를 가슴설레이며 맞이합니다. 이는 큰잔치가 아이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합심하여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키워가고 내용을 채워나가는 한판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탁아소를 만들고 가꾸며 올바른 탁아정책을 요구하는 일은 매우 중대하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이 일을 부모와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생을 감수하고 창조적 활동을 하신 선생님들, 자신의 자녀의 문제에서 나아가 전체 아이들의 양육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어머니들, 그리고 그간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며 굳굳이 격려 지원하던 아빠들이 함께 모여 벌이는 힘찬 행진은 매우 값진 것이며 그러한 활동들을 모으고 새로운 힘을 얻어 출발하는 자리가 바로 '어머니 큰잔치'입니다. 이제 횟수로 5회를 맞이하는 '92 어머니 큰잔치'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자라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머니들의 모든 활동이 아버지의 적극적 협력 아래 가능하다는 점과 그간 자식 사랑과 아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음을 늘 불만으로 표현하는 아버지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잔치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번 어머니 큰잔치는 말그대로 잔치의 자리로 열리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다같이 축하하며 그동안 닦은 기량을 맘껏 토해내어 후회없는 자리를 만듭시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확인되는 감격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합시다.

준비사

모두 함께 열린 마음으로



정희연 (부천 롬비니동산 교사. 큰잔치준비위원장)

청명한 가을 하늘, 북악산 줄기에 곱게 물들기 시작하는 나뭇잎들, 이런 좋은 날에 우리 지탁연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한마당 잔치를 벌입니다.

바쁜 직장일과 집안일 가운데 시간을 쪼개 각 지역 엄마들의 숨겨진 솜씨를 갈고 닦았을 연습모임들, 엄마아빠들과 그간의 준비들을 함께 꾸려낸 각 지역의 선생님들, 덩달아 바빴을 (?) 우리 아이들, 모두가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들입니다.

여지껏 어머니대회와는 달리 올해 제5회 어머니 큰 잔치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전문노래단의 노래공연으로 보는 즐거움과 듣는 즐거움을, 각지역 엄마아빠들의 빛나는 솜씨 자랑, 신나는 놀이를 통한 하나됨, 모처럼 맞는 일상에서의 탈출.

아뭇든 오늘 하루는 마음을 열고 신명나게 즐겨봅시다. 그리하여 오늘의 신명이 우리아이들, 우리 엄마아빠들의 내일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기를...

그동안 어려운 준비과정을 거쳐 오늘 이자리까지 참석해주신 엄마 아빠들께, 일주일에 한번씩 꼬박꼬박 준비모임을 위해 나오셨던 준비위원 선생님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사

시간: 오전 11시 ~ 오후 5시

사회: 이정님 (대전 샘골어린이집 교사)

잔치 펼침 마당

1. 깃발입장 / 각 지역위원회, 소속 탁아소
2. 개회선언
3. 개회사 / 신 청자 (성남지역 공동자모회장)
4. 축사 / 최 현숙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노래 마을'의 노래공연

- .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줄 될 수 있다면
- . 구전 동요 모음 노래
- . 꽃피

12시30분~1시 30분 점심시간

(점심시간이후에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아빠 한마당

***** 열린 마음 하나 *****

아빠들의 작은 운동회,우리 아빠 멋쟁이 / 각 지역위원회 대표 아빠
한발로는 힘들어요, 땀튀기에 사랑을 실어,아이들에게 꿈의 날개를

아빠 노래 솜씨 어때요? / 북부,인천지역 자부회

***** 열린 마음 둘 *****

일터에서 엄마노동자의 권리보장은 힘들고 / 구로지역

"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구로 엄마아빠가 최고야 ! "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엄마노동자의 삶의 애환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간단한 극으로 표현한다.

< 소양강처녀 (개사) >

- | | |
|-----------------------|---------------------|
| 1.치솟는 방세와 뛰는 물가를 | 2.해저문 작업장에 황혼이 지면 |
| 아빠혼자 벌어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 오늘도 앞 칠판엔 전원잔업 전원철야 |
| 울면서 매달리는 너를 두고서 | 내몸은 강철인가 로봇인가 |
| 미싱대에 앉노라니 너의 얼굴아른거린다. | 아이는 혼자남아 엄마를 기다리는데 |
| 아 아~ 안타까워 애만 태우는 | 아~ 안타까워 애만 태우는 |
| 어미의 마음 | 엄마노동자 |

< 우리이야기 >

1.사장님 우리사장님 돈욕심좀 그만내세요 네? 땀튀기에 몸 -보신에- 우리
허리 휘잖아요.저-임금에 장시간노동 노동3권어디갔나요.줄음에 겨워 불량나오면
그-게 모두 내탓인가요 (말도안돼) 우리들은 일만할줄 아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2.노조도안돼(돼) 단결도안돼 (돼) 안돼는게 너무많아요 네? 사람-답게 살겠다
는데- 부당하고 웬말인가요 난 알아요 노동자권리 싸워야만 얻는다는걸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갈길 막을수 없어 (힘찬전진) 민주노동 꽃피울때까지
단결투쟁할 -거예요.

맞벌이부부의 생활은 고달퍼도 /동부

"타카소에서 나는 사랑으로 이웃사랑 꽃피우자"

엄마노동자의 삶과 직장에서의 어려움,타카소 생활에서의 즐거움을 민요와
놀이로서 표현.

< 아리랑 목동 (개사) >

야야 야야야야야 ---

1.졸리운 눈 비벼대며 하루일과 시작하는 맞벌이 부부 고달픔도 사랑으로 이겨
내니 출근길에 애기울음 노래소리로 들리누나

2.퇴근길에 바쁜걸음 재촉하여 달려오니 빨래청소 방안가득 어이할까 일뿐이니
편히쉬는 남편얼굴 알뜰게만 보이누나

아리아리동동 쓰리쓰리동동 아리랑 콧노래를 들려나 주소

< 에야디야 (개사) >

1.에야디야,에야디야

타카소에 다니더니 아이튼튼 밝은얼굴 타카소가자 성화일세,우리아기 최고일세

2.에야디야,에야디야

타카소에 다니더니 우리아기 똥보됐네 똥똥하네 똥똥하네,살좀빼세 살좀 빼세.

3.에야디야,에야디야

타카소에 다니더니 사랑을 배워왔네 여보당신 여보당신 소꿉놀이 하자하네

< 꽤지나 칭칭나네, 꽤지나 칭칭나네 >

나가나 들어가나 복도 많다 꽤지나 칭칭나네
일복많은 내 팔자야. 꽤지나 칭칭나네. 못살겠다 못살겠어 꽤지나 칭칭나네
물가땀에 못살겠다 // 작업장에 들어가니 //
아줌마라 팔시하네 // 꽤지나 칭칭나네 꽤지나 칭칭나네
일하는 엄마 하나되어 // 우리네 권리 찾아보세 //
탁아소에서 나눈 사랑 // 이웃사랑 꽃피우네 //
우리 남편 사랑받네 // 집안일도 척척이네 //
우리의 소원은 내 집 마련 // 우리의 소원은 가족건강 //
꽤지나 칭칭나네, 꽤지나 칭칭나네

우리아이 고은이의 일기를 보면 힘이 솟네 /수원

“뵈아오는 탁아정책 선진수원 이룩하자!”

< 생일 (개사) >

1. 온동네 떠나갈듯 울어젖히는 소리, 네가 세상에 태어났단다. 바로 그날이란다.
2. 구멍뚫린 아빠월급 쪼들리는 살림살이 우리엄마가 직장엔 나가던 바로 첫날이란다.

< 파란나라 (개사) >

우리탁아소에 가봤니? 꿈과 희망이 가득한
우리탁아소에 가봤니? 친절한 선생님과 친구가 있는
우리탁아소에 가봤니? 놀이와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탁아소에 가봤니? 부모님 걱정없이 자랄수 있는
우리들에게 좋아요 모두가 함께 웃어요. 하!

하지만 아빠마음은 모르겠네 /부천

“엄마아빠 일어서면 부탁되는 쑥쑥, 아이들은 툼툼”

탁아소의 소모임에 적극적인 엄마와 그것을 찬성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우려
고는 하지않는 아빠와의 갈등을 노래와 극으로 표현

< 일이 필요해 >

끝없는 집안일, 반복 또 반복 그중에 한가지 먹는일만해도 하루에 세번 일주일
에 21번 한달에 아흔번 일년이면 천번이 넘게
굴러떨어지는 바윗돌을 올리는 시지프스의 노동처럼
여자라서 아내라서 여자라서 어머니라서
사랑의 이름으로 모성의 이름으로 일할 의무만을 던져주고 누릴권리는 빼앗아
갔네

아빠, 엄마와 함께 /북부

“ 기뻐주고 사랑받는 북부 아빠 댁세 !”

< 소양강 처녀 (개사) >

1. 밥짓고 빨래하고 직장에 가고 아이를 키우노라 한시라도 안심을 못해
시들은 꽃잎처럼 병든 내칭춘 아빠도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찌나
아~ 무정하게 애만 태우는 알미운 아빠
2.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도 못해 특하면 짜증내고 다정다감 애기도 못해
연애때 안 그러던 우리부분데 맞벌이 세월가고 마음마저 변했나
아~그렇지만 오직 한사람 여보 힘내요

< 알미운 사람 (개사) >

1. 아이만 낳았으면 질로 크느냐 알미운 아빠 엄마마음처럼 어여쁜 우리아가 건
강히 자라나거라. 먹이고 입혀주고 씻겨도 주지만 고달픈 엄마손길 아빠도 몰
라. 한번쯤 아빠노릇 할 수도 있건만 아~알미운 아빠
2. 오늘도 또 싸우고 명이 들었나 철없는 아가. 예쁜 우리아가 선생님 말씀듣고
착하게 잘지내야지. 열심히 뛰어놀고 밥도 잘먹어 미래의 꿈나무가 되어주거라
정성껏 마음주고 사랑도 주지만 아~ 아가는 몰라

< 홀로아리랑 (개사) >

1. 우뚝선 언덕위에 탁아소하나 오늘도 아이 손잡고 탁아소 간다.
조그만 몸짓의 양징맞은 모습 아가야 저녁에 데리러 갈게

- 2.우리들 가슴속에 소망이 있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생활도 여유있고 여가도 즐기고 서로를 아껴주며 이끌어가자
- 3.엄마도 아빠도 아빠도 엄마도 보사부 구청도 탁아소 돕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그날이 올때까지 열심히 살자

후렴 :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힘내서 언덕을 넘어가보자
가다가 못가면 쉬어가더라도 모두들 손잡고 함께 가보자

아동지원 확보하고 / 중부

“100 % 아동지원, 우리힘으로 쟁취하자!”

<소양강 처녀 (개사)>

- 1.언제는 탁아소에 지원을 한-다.여기에 저기에 탁아소를 짓는다더니
하루벌어 먹고사는 엄마아빠는 아침과 저녁으로 한숨만 느는구나
아-아 투쟁해서 쟁취하리라 탁아소 지원책

- 2.허울좋은 탁아지원책 떠든다 마-는 우리네 엄마와 아이는 달라진게 없구나
실속없는 말장난에 이젠 안-속아 엄마 아빠 뽕뽕뽕쳐 큰소리로 외친다.
아-아 백퍼센트 아동 지-원 시설지원 쟁취하자

확실한 시설지원 이루자 / 인천

“우선 느껴요 확실한 시설 지원속에 커가는 아이들과 탁아소의 희망을”

<참사랑(개사)>

비가 새네요, 물도새네요, 엉덩이가 시려워요 .찬바닥에도 앉기 싫어요,아이 참
어떡해요.보일러도 깔아주구요,앞마당도 만들어주세요.우리 탁아소 우리아이들
사랑사랑으로 살아가지만 하고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뜨거운 마음으로 시설
지원 ~부탁해요

< 선생님 우리선생님 >

선생님 우리선생님 정말정말 사랑합니다. 부모님 우리부모님 너무너무사랑합니
다.힘겹게 아동지원 이제 겨우 따냈지만 한걸음 더 나가서 시설 지원 문제없어요
아이들 힘찬 노래 온누리에 퍼져나가요

비새는 화장실 천정 이제그만 안녕할래요.한 아이당 1.5평 확보 그게 그리 중
요한가요 좁지만 사랑 흐르는 우리탁아소 너무 소중한. 시설 개보수 꼭 필요해요
우리들은 희망이니까 .엄마 아빠 힘내세요 씩씩하게 자랄거예요.

<낙랑 18세 (개사)>

사랑넘치는 탁아소에서 친구랑 덩기덩덩 신이나네요. 넓고 따스한 우리들 공간
위험은 이제 안녕 안녕이에요.커졌네.놀랍네 (놀랍네) 새롭고 즐겁군(즐겁군)
시설지원이 확실하다면 요렇게 될꺼예요 우리탁아소!

모두모두 힘을 합쳐야 해요! /안산

“ 언짜의 당찬주먹,아빠의 굳센 팔뚝으로 탁아복지 앞당기자 !!”

비영리탁아소들과 일반 민간탁아소들이 손을 맞잡고 잘못된 탁아법과 탁아행정
을 함께 고쳐나가 모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들께 교육받을 수 있
는 좋은 탁아소를 만들자는 결의를 춤과 노래로 표현

힘을 합쳤을때 영유아보육법도 개정이 됩니다. /성남

“영보법 개정의 마지막 자존심 성남 타 타 타 !”

<소양강 처녀 (개사)>

해저문 민자당의 마지막 발악 영보법 .날치기 통과 우리모두 열받았네
서너살 세쌍둥이 어린죽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부여안고 나가자.
아~ 영보법 개정으로 육아의 사회화 실현하자 영보법 개정은 원초적 본능이다.

<청춘행진곡 (개사)>

불타는 심장 피끓는 주먹 올바른 영보법을 세워가세 우리는 영예로운 이땅의
어머니 우리는 손에손 잡았네 거리거리를 따라 영보법 개정의 싸움을 승리의 깃
발로 영보법 개정을 당차게 밀고 나가세

<여성전사 (개사)>

선생님들 힘겨울때 손을 맞잡고 불철주야 고민하던 어머니들이 깃발든 모습이
너무도 당당하여라 아아아 아아아 영보법 개정하자 야!

우리는 자랑스런 금수강산의 딸이여라 흉가슴 열어젖히고 새싹의 희망안고 법
개정의지 불태우는 깃발든 어머니들

또한 올바른 탁아정책은 민주정부수립으로 ! /봉천
“민주정부수립은 타원한 선택 !”

<4천만의 꿈과 희망,아!민주정부 >

한순간을 살아도 산맥처럼 당당하게 침묵의 거리를 박차고 투쟁하는 삶이라면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의 밤을 태우며 눈보라 비바람속에 전선으로 전선으로
청춘을 바쳐 싸우는 것이 투사의 운명이라면 반역의 세월 찢어버리고 전선에서
다시 만나세

아아아 민주정부(만세!) 4천만의 희망이여 죽어도 다시 살아도 세우리라 꽃피
우리라 .청춘을 바쳐 싸우는 것이 투사의 운명이라면 반역의 세월 찢어버리고 전
선에서 다시 만나세.아아아 민주정부 (만세!) 4천만의 희망이여 죽어도 다시 살
아도 세우리라 꽃피우리라

대 동 놀 이 한 마 당

진행:민족극패 '울력'

엄마,아빠 뽀뽀뽀쳐 하나되어 놀아보자 !딩더쿵 더쿵
풍물공연,박 터트리기,강강수월래

아 동 프 로 그 램

시 간 :오후 1시 30분~ 5시

아이들 휴식공간: 입업대 강의실 (지역별로 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시사 : 오후 2시부터 ~

인어공주,옛날 옛적에 ..

인형극단 '해바라기'의 공연 :

오후 2시,3시 (2회)

성미급한 도깨비,달려나 삼보

장소: 101호 강당

바깥 놀 이 :바깥에서는 아이들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국민대 시설 이용도를 참조바랍니다.

안 내 소 :약품,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초청공연단 소개

노래 마을

대중속에 살아숨쉬는 건강한 노래, 맑은 노래를 지향하는 노래마을은 1983년 12월 작곡가 백창우를 중심으로 몇 몇의 노래꾼으로 결성된 전문음악집단이다.

노래마을 1집 '그대 어느 어둠앞에 서더라도 혼의 노래 잃지 않기를'. 노래 마을 2집 '우리의 노래가 그늘진 땅에 햇볕 한줄 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1, 2집. 생활노래 모음집 '우리아이들' 등 활발한 음반작업을 통해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 '굽이치는 임진강' '백두산' 등 많은 노래들이 대중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최근 노래마을 3집을 준비중에 있다.

민족극패 울력

울력은 1988년도에 창단, 이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민족문화 건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문 문화 단체이다. 활동의 내용으로는 공연활동과 생산직 및 사무직의 문화 소모임 강습 (춤, 풍물, 기타, 연극) 활동을 하고 있다.

'88년도 '잠들지 않는 남도'(제주 4.3항쟁) '89년도 '달동네 사람들'(사당동 도시빈민 투쟁기) '90년도 '또하나의 생일날 (전태일 열사 20주년 기념 노동극제) '91년도 '안전제 2' (산업재해 문제) '92년도 '작은 공장 연극반 사람들'

인형극단 '해바라기'

1986년 5월 창단, 전국문화소외지역 어린이를 위한 순회공연(10회) 전국장애자를 위한 재활인형극 순회공연(2회) 인형극지도자를 위한 단기인형극 강습회 (10회)를 하였다.

제1회 춘천인형극제(1989년)부터 참가하여 1992년 제4회 연극제에는 '성미급한 고양이, 메추리와 아이들, 도깨비 이야기'를 갖고 참가하였다.

주요공연작품으로는 달려라 삼보, 보물항아리, 호랑이 이야기 등이 있다.

연락처 495-4236 (하혜자)

지방 어머니 큰잔치 행사

**** 부산

제목: 제4회 부산지역 탁아소 가족 한마당

일시: 10월 18일 (일) 오전 10시30분

장소: 수산대학교 소운동장

내용: 길놀이, 제기차기, 줄다리기, 장애물 달리기, 박터트리기, 강강수월래

**** 전북

제목: 제2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일시: 10월 3일 (토) 오전 10시

장소: 전북대학교

내용: 소고춤, 촌극, 민속놀이, 대동놀이, 시가행진

**** 광주

제목: 광주지역 공동나들이

일시: 10월 3일 (토) 오전

장소: 광주 백양사

****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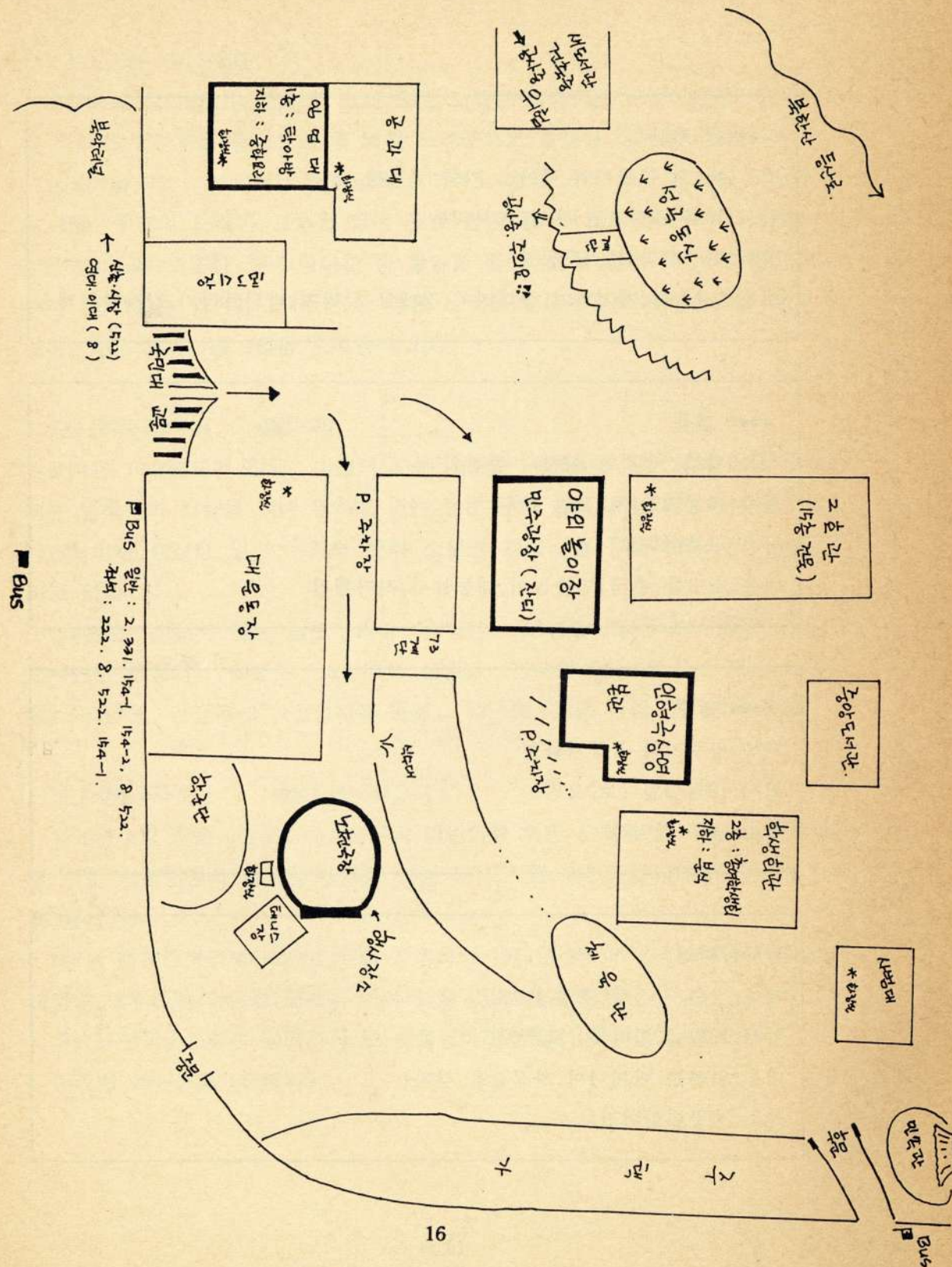
제목: 장현자 선생 초청강연회

일시: 10월 22일 (목) 오후 6시

내용: 일하는 어머니여, 자신감을 갖자!

장소: 샘골어린이집

국민대 시설 이용도



기획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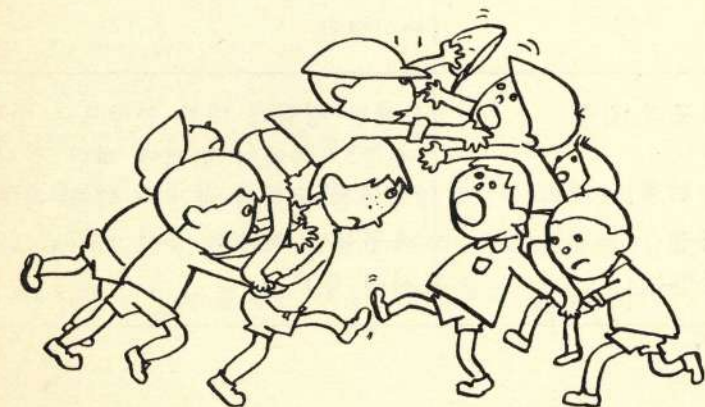
함께 키우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큰잔치 중앙준비위원회

I.서론

안녕하십니까?

1년만에 제5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산하의 모든 비영리탁아소에서는 아동의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공동체 교육을 구현시키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동을 키우는 일은 이제, 단지 부모나 교사만이 아닌 모든 사회구조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엄마만 키우는 육아가 아닌 미래의 희망인 우리아이들을 모두 함께 키우는 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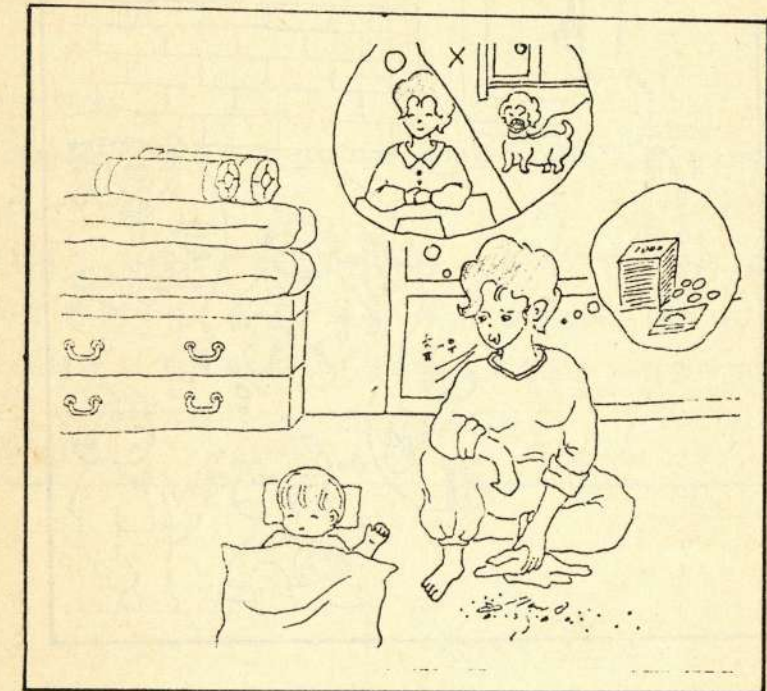


Ⅱ. 탁아대상연령아동의 성장발달단계

구분	영 아 기 (0세~만 2세)	유 아 기 (만 2세~만 5세)
신 체 발 달	출생시:신장50cm 체중3~3.5kg 1세 :신장은 출생시의 한배반 체중은 9.5kg 걷기 2세:성인 신장의 1/2, 체중의 1/4 20개의 치아, 조작기 능 발달	4세:대소변 통제 5세:체중은 출생시의 5배이상,키는 약 2배 자조기능의 발달 6세:영구치 생김
언 어 발 달	출생시:분화되지 않은 울음 용알이 1세: 한 단어 18개월: 두 단어 2세: 세 단어	3~4세:세단어문장, 피동문의 사용 5세:5단어 이상 사용, 의사소통기술의 발달 접속문 사용->"지지되면 버려요" 내포문 사용
인 지 발 달	출생시:반사작용 적응 1세:의도적 행동 2세:사물에 대한 개념 획득	3~4세:분류개념의 불확실성, 중심화 현상 자기중심성, 물활론적 사고, 꿈의 실 제론
사 회 성 발 달	6~8개월:애착형성 13~18개월:격리 불안 1세:낯선사람에 대한 불안	자아의식의 발달 :성취감, 자율성, 자존감 성유형의 발달:성에 맞는 행동양식 양심의 발달:어른의 도덕기준을 지키려 함 대인관계 발달:형제->또래 놀이발달
정 서 발 달	출생시:공포의 감정 분노 1세: 질투 애정 2세: 불만	불쾌한 경험에 대한 연상으로 인한 고통 4세경:가족에서 또래에 대한 정서적 의존 2~3세경:동생의 출생과 때를 같이하여 생김 욕구불만, 떼쓰기 등이 나타남 ("엄마, 저거 사줘 등)

Ⅲ. 공동육아의 좋은점

남편월급은 오를 기미가 안보이고 나도 돈을 벌어야겠는데,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아이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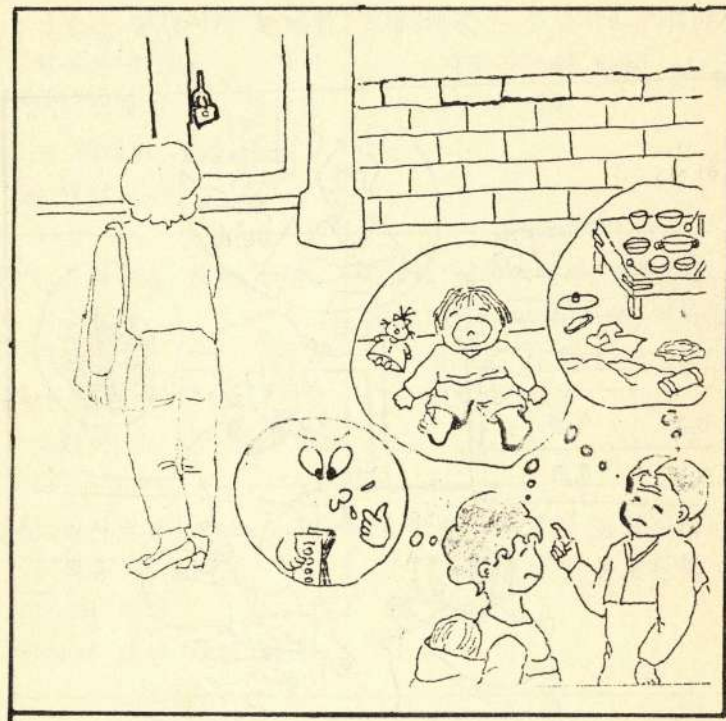


탁아소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성경제활동인구의 45.8 %가 기혼여성이며 또한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이 단순노동직으로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부모가 모두 생업에 매달리게 되므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문제는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합니다.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어린 자식들 떼냐!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밖에서 잘하면 뭐 해!
어떤 탁아소에선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던데 !



막상 취업을 하고나면 힘들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남편과 이웃의 편견들 외에도 여성 스스로 TV에 나오는 전문직 여성처럼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일도 잘해내어 남편 사랑받은 모습을 꿈꾸다 스스로 자
기를 낮추며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마의 고민은 아빠의 가사, 양육에의 참여로 또 아이가 탁아소에 잘 적
응하여 교육적인 변화모습을 보일때에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공동육아의 좋은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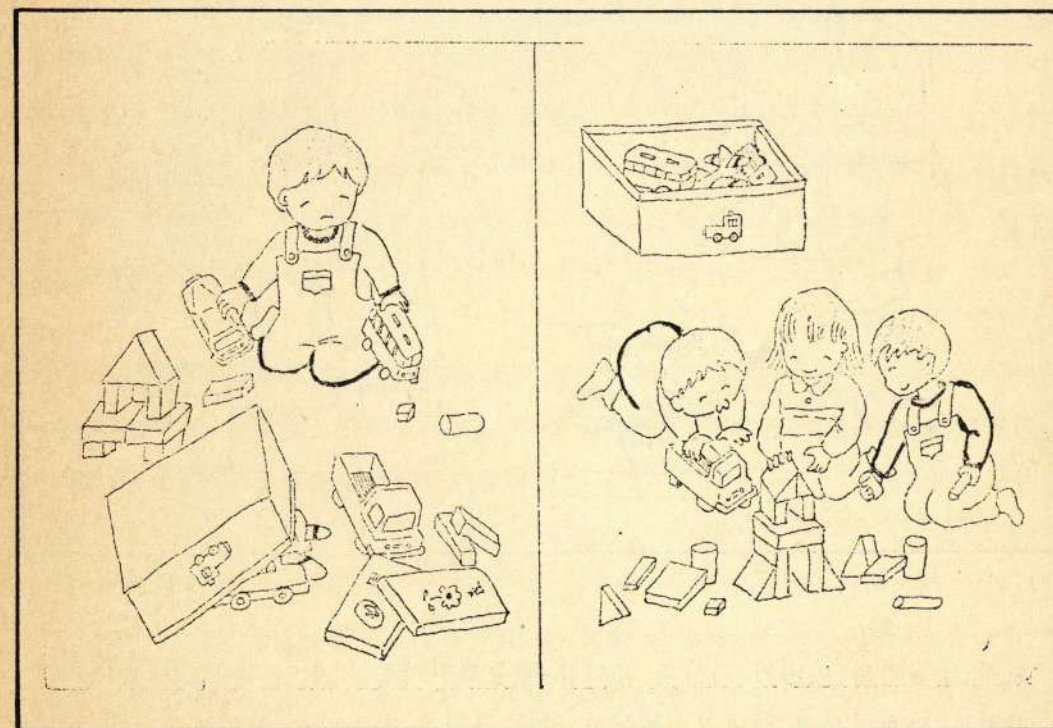
탁아소에 처음으로 아이를 맡길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를 쓰고 우는 아이를
보며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도 잠시, 최근의 연구들을 살
펴보았을때 탁아소를 다니는 아동이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 신체발달 모든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정서, 사회성〉

탁아소의 경험은 또래아동과 탁아교사의 애정으로 인해 사회, 정서적인 충분한
자극을 줍니다.

다수의 애착관계 (탁아소 선생님, 주변 어른..) 를 경험한 아동이 낯선
상황에 더 잘 적응하며 더 명랑하고 동생의 출생시에 덜 슬퍼한다고 합니다.

또한 낯선 또래와 더 협력적이며 더 성숙한 상호소통을 하였으며 자신감과 자
부심이 강하고 성인으로부터도 더 독립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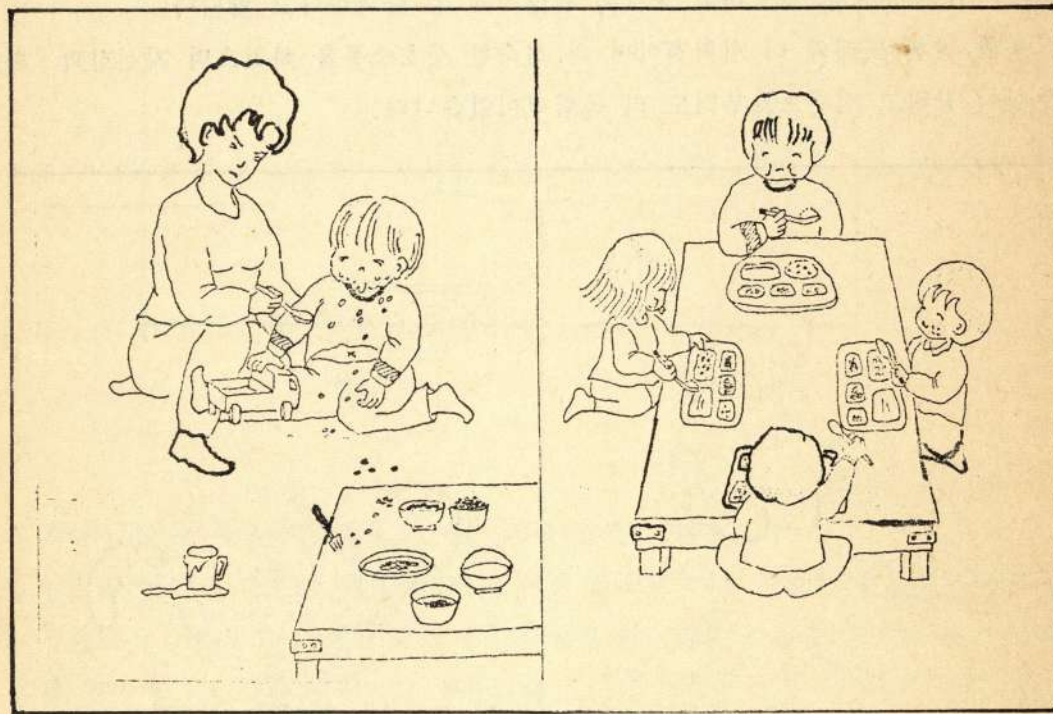
〈언어와 인지〉

또래와 다수의 성인으로부터 다양한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일찍 발달하고 보다 사고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실제로 탁아소를 다녔을 때 일찍 말을 깨우치고 다양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체〉

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탁아소에 다니는 아동은 입소전에 비해 건강상태는 일반적으로 좋아졌고, 식성에 있어서도 편식경향이 없어졌으며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탁아소에서 제공하는 간식의 질에도 이유가 있겠으나 또래와 활발하게 뛰어 놀 수 있고 규칙적인 식생활과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남편과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공동책임지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역할 규정은 자라나는 아이에게 남녀 평등,

인간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됩니다.

또한, 하루종일 아이와 같이 집에 있어도 설거지에 밥하기, 청소, TV시청외에 순수하게 아이와 상호교류하는 시간이 적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와 1:1 상호교류의 질을 높임으로서 더 우수한 모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취업모들은 자신에게 불만족스런 전업모들보다 교육적인 혜택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가사,육아에의 참여,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취업모, 그리고 아이를 보호,양육하는 탁아소가 한데 어우러져 아동양육의 책임을 나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탁아정책 수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취업모의 증가와 함께 주위에 놀이방들이 생겨 났으나,대부분 시간,보육료 등이 맞지 않아서 쉽게 이용하기가 어려웠고 마땅히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어야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일하는 엄마들과 아이들의 문제를 절감한 몇몇 사람들이 지금부터 8년전부터 공장,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엄마들의 요구에 맞는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탁아소들은 탁아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하 지탁연)를 만들었습니다. 지탁연에서는 탁아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과 아이들을 보다 잘 보호,교육하고 민간비영리탁아소를 늘이기위한 교사교육, 연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사회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지탁연에서는 사회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공동의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목표는

- 1)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 2)노동이란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일하는 것에 대한 욕

바른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교육

3)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올바른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교육

4) 우리민족의 천대비극인 분단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꼭 다시 하나가
어아 한다는 통일 지향적 교육이다.

그리고 위의 같은 교육목표 아래 지탁연 교사들은

1) 규칙적이고 균형잡힌 식사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아이,

2) 나라를 사랑하고, 주변세계에 대한 탐색과 이를 표현할 줄 아는 아이,

3) 일상공동의 생활의 필요한 직서와 규율을 이해하고 지키줄 아는 아이,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아이,

4)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연현상,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속에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을 가진 아이

5) 여러가지의 자극, 접촉의 기회를 많이 하여 언어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생각 경험등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 일상생활
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V. 맺음말

우리 지탁연 교사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더욱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탁아소들의 조건은 열악하여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더이상 육아를 얼마나 한 가정의 책임
으로 돌릴 수 없으며, 미래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은 사회
적으로 책임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에게 올바른 탁아법과 정책을 수립
키위해 청원, 요구대회, 서명작업 등의 활동을 해왔다. 교사들과 엄마들의 이같은
활동은 적지만 아동에 대한 지원을 따내었고, 앞으로도 시설 운영지원 등 지원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힘차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아이들이 밝은 미소로 희망
찬 사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나갑시다.

함께 부르는 노래



< 전진하는 여성노동자 >

아무도 불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당당한 이땅의 반
젖뭍고 잠든아이 미래를 위해 넓은 웃음 번치않고 싸우러 갔다.

1. 구사대 몽둥이보다 더 아픈것은

해방의 하늘을 열지못하고 운명에 맡겨 쓰러짐이다

나가자 여성노동자 자랑스런 동지여 여성해방 그날 위해 우뚝서라 해방전사여.

2. 모성보호쟁취를 위해 투쟁한다면

평생평등노동세상 열어젖히고 해방의 눈물꽃 만발하리라

나가자 여성노동자 자랑스런 동지여 노동해방 그날위해 우뚝서라 해방전사여.

< 사람이 태어나 >

1. 사람이 태어나서 세번을 운다지만 노동자는 오직한번 동지를 위해 운다

끝없는 노동속에 우리 젊음 흘러가도 머리띠를 묶으면 다시도 청춘이다

2. 사람이 태어나서 육십을 산다지만 노동자는 오직하루 해방의 그날위해

자본가너희놈들 아무리 빼앗아도 가져갈수 없는 건 동지의 굳은 사랑

후련: 노동자 가는 길에 후회일랑 없구나 오늘은 투쟁이다 내일은 해방!

< 똑같아 똑같아 >

아 ---- 아---

1. 백담사 대머리 연희동으로 5공 6공 짹짹 땀뭍이라고

나 이사람 노태우 떨어주세요 대머리나노가리나 그놈이 그놈

2. 윤리조러은근슬쩍 잘도내배는 썩은세상온갖비리 진짜주법들

우리모두 어때걸고 거리에서면 투쟁으로 참된세상 쟁취한다네

후련: 똑같아 똑같아 막가는 세상 열받치는 우리더러 뺨갱이라며

정치자금뒤로 쟁겨선거대비해 장기집권누리고자 각당하누나

< 아! 민주정부 >

한순간을 살아도 산맥처럼 당당하게 침묵의 거리를 박차고 투쟁하는 삶이라면

죽음보다 더 깊은 정명의 밤을 태우며 눈보라 비바람속에 전선으로 전선으로

청춘을 바쳐 싸우는 것이 투사의 운명이라면

반역의 세월 찢어버리고 전선에서 다시만나세

아~아~ 민주정부 사천만의 희망이여

죽어도 다시 살아도 세우리라 꽃피우리라

< 백두산 >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우리들의 백두산으로 신선한 겨레의 숨소리 살아뛰는 백
두산으로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만주벌판 맑을 달리던 전사들의 투쟁의 고향 백두
산으로 찾아가자 서해에서 동해에서 남도의 끝 제주도에서 그 어디서 떠나도 한
뫼에 넉넉히 안아줄 백두산 온힘으로 벽을 허물고 모두 손뼉잡고 오르는 백두산
이여 꺾이지 않을 통일의 깃발이여

< 참사랑 >

바람불어도 눈보라쳐도 그대당신은 내사랑.

거친 손가락 못생긴 얼굴 당신은 나의 참사랑

투쟁속에 우린 만났죠 아원영국 서로 보듬고 우리 새세상 만들때까지 우리 번
치않고 투쟁하자고 그대가 감싸주는 내어깨에 어리는 뜨거운 그 온기는 노동의
꿈과 희망입니다.

< 영국찌푸리지 말아요 >

영국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일하는 언마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잖
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험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바람에 처절도 하겠지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않아 덕아지원 그날까지 단결, 단결하자

<진짜 여장부>

1. 여자로 한평생 살아갔다 우리는 진짜여장부
의리타 깡다귀로 뭉쳐진 나는! 너는! 진짜여장부!
 2. 적들이 아무리 깃발허도 우리는 까닥없구나
지덕연 깃발아래 하나된 나는! 너는! 진짜여장부!
- 후렴: 첫사랑에 눈물 흘릴땐 그땐 정말 철부지였지
파업투쟁에 세상알았다 노동자 새세상

< 딸들이 일어나라 >

1. 어두웠던 밤 지나 새벽이 연어붙은 땅녹아 새싹이
래래묵은 낡은 틀 싹둑잘라버리고 딸들이 일어나라 깨어나
이땅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런 딸로 태어나
사랑도 행복도 다배앗겨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해
나가자 깨부수자 성차별 노동착취, 뭉치자 투쟁이다 여성해방 노동해방
2. 우리는 이땅의 노동자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
더이상 버텨줄 수는 없다 딸들이 일어나라 깨어나
이땅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런 딸로 태어나
고귀한 모성보호 다배앗겨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해
나가자 깨부수자 성차별 노동착취 뭉치자 투쟁이다 여성해방 노동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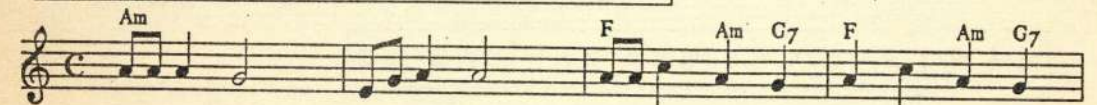
구전 동요 엮음

두껍아 두껍아/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아이들 노래



두껍아 두껍아 흰 집 줄 께 새 집 다 오
까치야 까치야 흰 이 줄 께 새 이 다 오

잠자리 노래/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아이들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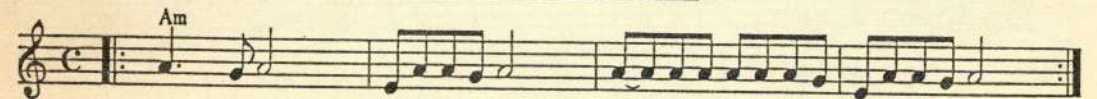


짱아짱 아 빨간짱 아 앉으면 살고 서면 죽고



쌀밥에 미역국 말아 줄 께 이 리 오 너 라

술래잡기 노래/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아이들 노래



(어른) 야 -야 모두나와라 애-들은들어가고 어른나와라
(아이들) 야 -야 모두나와라 어-른은필요없다 애들나와라
(합계) 야 -야 모두나와라 아이어른할것없이 모두나와라

술래잡기 노래 2/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아이들 노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보일라 호랑이님나간다 꼭꼭숨어라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보인다

어깨동무 씨동무/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아이들 노래

어깨동무 씨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
어깨동무 씨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

동무동무 씨-동무 보리가나 도록 씨동무
동무동무 까치동무 예쁘게예쁘게 날아라

비야 비야 오나라/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아이들 노래

비야 비야 오나라 설-장구쳐 주마
비야 비야 오나라 설-장구쳐 주마
비야 비야 오나라 장터거리볼 났다
비야 비야 오나라 장터거리볼 났다

비야 비야 오지마라/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아이들 노래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시집간 다
연지곤지 고운얼굴 다졌으면어떡하 니

우리의노래가이그늘진땅에햇볕한줄수있다면

백창우 글.곡

우리의노래가 이그늘진땅에따뜻한 햇볕한줄수있다면 어
들산천타오르는 작은햇불하나될수있다면 우
리의노래가 이잠-든땅에복소리처럼울려날수있다면 침
묵산천숯구쳐오를 큰합성이나될수있다면 정
말종갯네 - 하늘첫마을부터 땅
끝마을까지 무너진집터에 서서 공장들까지 아아 사람의노래
해방의노래
평화의노래 큰강물로흐를그날 그날엔
통일의노래 큰눈물로흐를그날 그날엔
- 이름없는꽃들 다 이름을얻고 움추린어깨들 다

Fm7 B7 E A E

퍼 겠네 - 달힌 가 숨들 - 다 열 리고 쓰 러진이들다 일어나

B7 E A B7

아침을맞겠네 그 날 이오면 그 날 이오면 모 두하나될그날이오

E B7 E A B7

면 - 얼 싸 안고 춤 을 추겠네 한 판대동의춤추겠

E rit. B7 A E

네 한 판대동의춤추겠 네



사랑히게공하소서 사랑하게공하소서 그리하여 고이노날
못만위에 두대의종물소리들려나게공하소서.

꽃 모

백창우 글.곡

16 Beat C G7 Am Am7 Em Am Dm7 G7

아 가 이제눈 을뜨 렴 헛 살 고운아침이구 나 오랏

E Am Dm7 D7 G7

만에 - 하 늘 푸른 - 아 침 이 구 나 - 아

C G7 Am Am7 Em Am Dm7 G7

가 고운웃갈아입 고 집 을 나 서자꾸 나 열두

E Am C F C

구비 - 고 개 넘어 - 꽃 피 찾아가자꾸 - 나 어

E Am Dm7 G7

젓 밤 꿈엔 - 함박눈이 - 무척 이나 많이내리더구 나 오늘

Em E Am G E G7

무슨 - 좋 은 일이 - 있 으려 는 지 아

C G7 Am Am7 Em Am Dm7 G7

가 맑 - 게살 렴 탁 한 세상이지 만 예쁜

E Am Dm7 G7 C

웃음 - 잃 지 말렴 - 좋은 세상은꼭오고말거 야 너의

F Em Am Dm7 G G7
 마 음 을 빼앗 기지말렴 - 마음 처 럼 큰건없단 다 마음
 E Am Dm7 G7
 처 럼 무서운건 - 없단다 뭐든 지 다할수있 - 지 아
 C G7 C Em Am Dm7 G7
 가 이제잠 을깨 려 활 작 개인아침이구 나 오랏
 E Am C F C
 만에 - 햇 별 따 스한 - 아 침 - 이 - 구 - 나



어머니 큰잔치를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

'92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를 축하드립니다 !

민 주 당

일하는 어머니 잔치 한마당을 축하드립니다 !

통 일 국 민 당

일하는 여성 단결하여 새세상 만듭시다 !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다섯번째 맞는 어머니 큰잔치를 축하합니다.

천주교 도시빈민 사목위원회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보호교육받을 수 있는 참세상을 위하여

전국도시빈민협의회

탁아예산확보는 사회복지 앞당긴다.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어머니 큰잔치를 위해 함께 하신분들

< 서울경인지역 탁아소자원활동가 연대회의 >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건국대학교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애또래
서강대학교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성균관대학교 동아리 호우회
명지대학교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아이누리
숭실대학교 동아리 어린이 사랑회
중앙대학교 동아리 사랑터
산업대학교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시립대학교 총여학생회 연대사업분과
홍익대학교 총여학생회, 동아리 P.A.P.A
충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 선생님

이런에도 많은 분들이
어머니 큰잔치를 위하여
애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란 어떤 곳일까요?

계속 증가되고 있는 기혼 여성들 취업과 그로 인한 방치 아동들을 보호·교육하기 위하여 각 빈민, 공단 지역에 탁아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탁아소들은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뛰어드는 기층 기혼 여성들과 희망과 의욕에 찬 선생님들이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맛벌이 부부와 아동들의 문제가 각 가정에 개별적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라 인식하고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탁아소들이 전국에 8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탁아소들이 좀더 활발하고 내용성 있는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함께 모여 연합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개별 탁아소를 회원으로 하여 각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개별 탁아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와 일하는 기층 기혼 여성들의 주체적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아동교육과 부모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전, 경력교사들의 교육과 회보발간, 자료집 발간 및 어머니 큰 잔치, 노래공연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탁아법의 제정을 위한 각종 연대사업과 연구사업 그리고 공청회 등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이땅의 모든 일하는 여성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각 지역에서 작은 살림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탁아소들의 뜻을 모아 함께 모인 저희 연합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고 아울러 여러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립니다.

1. 정기회원 : 한달에 2,000원 이상
2. 특별회원 : 정기적인 액수와 회비와 상관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자원교사 : 항상 일손이 부족한 탁아소에 함께 일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밖에 장난감, 동화책, 아동복 등 무엇이든지 후원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행구좌 : 국민은행 229-01-0077-545 중소기업은행 057-01-0137-805

한일은행 07901-078565 농협 033-01-112755

조흥은행 903-1-004800

수 취 인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지탁연)

